

■ 양도·취득세 면제 혜택 제대로 받으려면

양도세 면제 연말까지 계약금 납부한 주택 취득세 면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등 일부 조치가 시행됐지만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수혜 대상 등을 놓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업계 전문가들은 4·1 대책의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 체결 전에 면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업계는 이와 관련, 4·1 대책에 포함된 수혜 대상이 늘어날 수도

록 일부 대책 기준을 보완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도세·취득세 면제 기준>=23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1 대책의 핵심인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달라 다소 복잡하다. 앞으로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미분양 주택 중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기로 하고 계약을 맺

으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22일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한 주택이 그 대상이다. 반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은 '6억원 이하 모든 주택'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소급 조정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협회는 이번 대책의 수혜 대상

이 예상보다 줄어들었다며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을 원래대로 '9억원 이하'로 되돌려줄 것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을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취득세 면제 기준을 '계약 체결'로 완화하면 분양 아파트 등 신규 주택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절세 혜택받을 때 주의점>=4·1

대책의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매도자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매수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한 소득 수준 기준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과거에 상속주택이나 공유지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주택 소유에서 제외되는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잘 나가네 '하이트진로'

소주시장 회복세...점유율 50%

하이트진로의 소주시장 점유율이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며 50%에 육박하고 있다. 23일 주류업계와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하이트진로의 소주 출고량은 401만 4000상자(360ml 30병 기준)로 전월의 367만4000상자보다 9.25% 늘었다. 시장 점유율은 49.4%로 전월(39.9%)보다 10%포인트가량 뛰었다. 반면 시장점유율 2위였던 롯데의 출고량은 1월 193만6000 상자를 출하한 무력이 13.5%의 점유율로 2위 자리를 탈환했다. 맥주 시장에서는 오비맥주와 하이트 맥주의 격차가 소폭 줄었다. 오비맥주의 2월 출고량은 704만8000상자로 1월의 778만7000상자에 비해 줄어든 반면 하이트



맥주 출고량은 1월 493만4000상자, 2월 492만1000상자로 큰 변동이 없었다. 시장 점유율은 오비맥주가 61.2%에서 58.9%로 소폭 줄어든 반면 하이트 맥주는 38.8%에서 41.1%로 상승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소주의 경우 지난해 12월 가격인상과 더불어 일선 도매상에서 생겨난 수요 때문에 1월 출고량이 일시 줄었다"며 "그러나 가수요가 해소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맥주도 지난해 말 영업조직 전면 개편에 따른 일시 공백현상으로 1월에 줄었던 판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농협, 새날학교 개·보수 봉사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와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대표 허권)는 최근 광산구 삼도동 소재 다문화대한학교인 새날학교를 찾아 강당 개·보수 공사와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썰렁한' 백화점 봄세일

지역 3사, 불황·날씨 여파 한자릿수 신장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봄 정기 바겐세일에서 소폭 매출 신장에 그쳤다. 세일 초반 매출 성장률은 평균 10%대를 기록하며 소비 경기 회복 기대를 높였지만 중반부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의류매출이 저조해 증가폭이 주춤했다. 23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17일 동안 진행된 봄 정기 할인판매 전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1% 신장했다. 4월 본격적인 봄 결혼철을 맞아 혼수 상품을 준비하려는 신혼부부 단위 고객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활매장의 매출이 30%가량 신장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에 윤달이 있

어 결혼식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번 할인판매 기간에 생활매장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 처음 맞는 봄철을 맞아 야외 옷매장의 매출이 전년 4월 정기 세일과 비교해 18%나 증가하는 등 두 자리수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핸드백 매장 16.8%, 구두 매장은 11.7%, 남성의류 7.1%, 액세서리 매장 5.5% 등 봄 의류를 준비하려는 고객들이 필수품목으로 여기는 분야에서 호조를 보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전년 대비 0.2%p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상품별로는 해외패션 매출이 3%

늘었고 남성의류(아웃도어, 스포츠 등 포함) 7% 줄었으며, 화장품 -3%, 여성 -9% 역신장을 기록했다. 가전·휴대폰 매출만 20% 크게 늘었다. 현대백화점으로 마지막 봄 정기 바겐세일을 맞은 현대백화점 광주점 역시 저조한 신장세를 나타냈다. 광주점을 포함해 전체 점포 기준 누계 매출이 지난해보다 8.3% 증가하는데 그쳤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세일 이후에는 예년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보여 여름 신상품을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오는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오는 만큼 선물행사를 집중적으로 펼쳐 매출 신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농협, 거래기업 '외국환 아카데미'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고태순)는 전남지역 우수 거래 기업(효성 팀버의 29개 업체)을 대상으로 최근 농협은행 전남 'NH 외국환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광주신보, 보증잔액 4500억원 돌파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형진)이 지난 19일 호남지역 신용보증재단 최초로 보증잔액 4500억원을 돌파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19일 현재 보증건수 3만6037건, 보증잔액 4504억원에 달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보증대상기업수가 9만 3000여개 임을 감안하면 이들 중 38.8%가 광주신보를 통해 보증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1위에 해당하는 기록

이다. 광주신보는 지난 1996년 설립 이후 다양한 특별보증상품을 시행해 매년 급속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부터는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진출로 침체일로에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자영업자 특별보증' 시행을 통해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신규 보증공급실적을 올리는 등 광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농어촌공, 내부 경영평가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지사장 허을석)는 22일 지사 회의실에서 경영평가 최우수부서 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전 임·직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내부경영평가 지표관리와 고객만족경영 우수부서 달성을 향한 1·4분기 추진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고, 실적 저조사업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토론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잘 생기네 '편의점'

CU 등 올해 250곳 늘어

올해 전국 편의점이 250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CU·GS 25·세브일레븐·미니스톱·홈플러스 365 등 주요 업체 5곳의 점포수는 3월 말 현재 2만4419곳으로 작년 말에 비해 250곳 늘었다. 업체별로 보면 CU가 8009곳으로 가장 많고 GS25 7293곳, 세브일레븐 7202곳, 미니스톱 1892곳, 홈플러스 365 233곳 등이다. 최근 3년간 국내 편의점 매출은 매년 18%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1년 편의점시장에 진출해 후발업체인 홈플러스 365가 사업설립회를 잇따라 여는 등 점포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업체간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 365는 서울과 경기에서만 지점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이마트가 공개리에 편의점 사업 검토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결국엔 시장진입이라는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이마트는 올해 초 독립형 편의점 위드미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기존 4강구도에도 대형마트 '빅2'가 가세하게 되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른 편의점 시장은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제83회 춘향제

Chunhyang Festival

사랑의 기적! 남원에서

다채로운과 즐거움이 가득한 사랑 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2013. 4.26(금) ~ 4.30(화)

남원 광한루원 일원

춘향선발대회 | 춘향시대속으로 | 춘향전길놀이 | 춘향국악대전 | 춘향그네뛰기

춘향제전위원회
Tel : 063)620-4881-5

남원시 문화관광과
Tel : 063)620-6181-3